



스위스재보험의 최신 시그마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인한 전세계 손실액이 미화 620억 달러에 이르며 그 중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Contacts: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Asia
Telephone: +852 2582 5644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Group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Swiss Reinsurance Company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10년 3월 16일, 홍콩 - 스위스재보험의 최근 시그마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로 1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회적 총손실액은 미화 620억 달러에 이르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미화 약 260억 달러에 이른다. 2009년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조용했기에 보험손실액은 평균을 밑돌았다.

2009년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사들은 미화 220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인적재해에 대하여 추가로 미화 40억 달러를 지급했다. 보험손실의 경우는, 보험사가 미화 127억 달러를 넘는 보험금을 지급한 북미지역이 가장 높았다.

전세계 재해 사망자 15,000명 중 아시아에서 9,400명(전체의 62.9%)의 사망자가 발생, 아시아가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아시아에서는 태풍 및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아래 표 2 참조). 그러나 아시아의 보험손실은 미화 약 24억 달러로 비교적 낮았다.

2009년 보험 손실 낮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09년은 손실이 적은 한 해였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근 시그마 보고서 “2009년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133건의 자연재해와 155건의 인적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보험손실을 유발한 재해는 6건이었다.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한 재해는 1월 프랑스와 스페인을 강타한 유럽 겨울 폭풍 클라우스(Klaus)로 미화 약 34억 달러에 이르는 보험손실을 유발했다.

역사적으로 자연재해 손실액은 상승세를 보였고 변동성이 컸다. 미화 달러 기준으로 세계 보험손실액은 약 10%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소득 증가, 부의 증가, 손실에 취약한 지역에서 높은 부의 집중도 및 보험 보상범위의 확대가 있다. 지구온난화 및 관련 극단기후 위험 증가도 이에 한 몫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수석 경제학자인 토마스 헤스(Thomas Hess)는 “2009년 정도로 자연재해 손실액이 낮을 가능성은 35% 이하이다. 유럽 겨울폭풍 신시아(Xynthia), 칠레 및 아이티의 지진을 비롯해 2010년에는 벌써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겪었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훨씬 높은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손실액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2009년 보다는 3배 내지 5배 높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05년 보험손실은 최고치인 미화 1,200억 달러를 기록한바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이 기록은 깨질 수 있다.”고 밝혔다.

2차 위험, 중요한 손실 요인이나 주목 받지 못하고 있어

최근 대부분 관심이 1차 위험, 즉 지진, 허리케인, 겨울폭풍 등에 집중됐다. 그러나 수많은 기타 자연현상, 즉 2차 또는 기타 위험 역시 광범위한 재물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2차 위험은 홍수, 산사태, 우박 폭풍, 토네이도, 유럽 이외 지역의 겨울폭풍, 폭설, 얼음폭풍, 가뭄 및 산불 등이 있다. 2009년 자연재해 손실부담 중 절반이상이 2차 위험에 의한 것이었다.

시그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젠스 멜호른(Jens Mehlhorn)박사는 “1차 위험으로 인한 보험료는 2차 위험으로 인한 손실의 교차보조에 종종 사용된다. 보험료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보험사가 1차 및 2차 위험으로 인한 총손실액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확률론적인 위험평가 모델이 2차 위험의 위험을 평가하여 가격을 책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진은 개도국 및 선진국 모두에게 큰 위협을 초래

2010년 1월 아이티와 2010년 2월 칠레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은 지진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1970년 이후 360건의 지진으로 100만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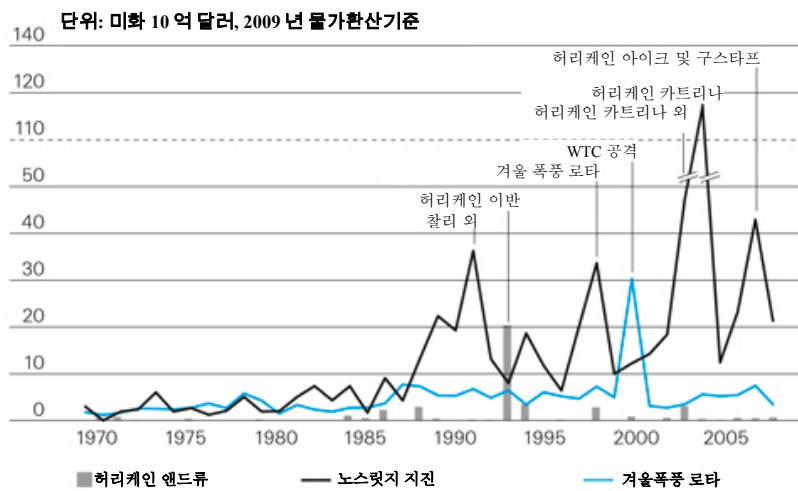
시그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브라이언 로저스(Brian Rogers)박사는 “최악의 지진은 경제 발전이 느린 국가와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지진에 취약한 지역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전형적으로 1인당 소득이 낮고 재해 전후 관리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개 사망자가 개도국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보험손실의 경우 그 부의 정도 때문에 선진국에서 높다. 그러나 부국은 재해로 인한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발전된 형태의 사전 예방책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제부국들은 보험 보상범위가 넓은 보험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건비용을 조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경제발전이 느린 국가도 특히 (재)보험사, 중개인, 정부 및 국제적 보험 대리점 등의 민관부문이 협력한다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마스 헤스는 “민간 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자연재해 보험 솔루션에 기여함으로써 신흥시장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 및 재보험사는 과거에 서로 협력을 통해 재보험 및 자본시장 솔루션을 실행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러한 솔루션은 재난을 유발한 지진 및 폭풍이 발생했을 때 참여 정부에 즉각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구제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림 1:
1970년-2009년 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액



출처: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대재해 데이터베이스

표 1:

2009 년 최대 보험처리손실액

순위	보험손실 (단위: 미화 100 만 달러)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1	3 372	2009.01.24	겨울폭풍 클라우스(Klaus) 최대풍속: 170 km/h, 폭우	프랑스 스페인
2	1 350	2009.02.10	뇌우 (최대풍속: 145km/h 우박)	미국
3	1 193	2009.07.23	우박 폭풍 볼프강(Wolfgang)(최대풍속 130 km/h)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외
4	1 130	2009.04.09	토네이도(최대풍속 105 km/h 의 강풍과 우박)	미국
5	1 079	2009.02.07	빅토리안 산불(최대풍속 100 km/h)	호주

출처: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대재해 데이터베이스

표 2:

2009 년 최대 사망자 발생 재해

순위	사상자 수 희생자 (사망 및 실종)	발생일자 (시작일)	재해 유형	국가
1	1 195	2009.09.30	지진(진도: 7.6) 및 여진	인도네시아, 인도양
2	930	2009.08.07	제 8 호 태풍 모라콧 (최대풍속: 148 km/h, 홍수)	대만, 필리핀, 중국 외
3	854	2009.09.26	제 16 호 태풍 켈사나 (최대풍속: 160 km/h, 홍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외
4	539	2009.10.03	17 호 태풍 파마 (최대풍속: 195 km/h, 폭우)	대만, 필리핀, 중국 외
5	520	2009.07.01	몬순강우로 인한 홍수	인도

출처: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대재해 데이터베이스

표 3:

용어 및 선정기준

자연재해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손실사건	
인적재해	인간의 활동과 연관된 손실사건	
총손실액	직접적인 경제적 여파를 가져오는 손실	
재물보험 손실	총손실액 중 재물보험으로 처리된 금액	
선정 최저기준		
총손실액	미화 8,520 만 달러	
또는 재물보험 손실	해운:	미화 1,710 만 달러
	항공:	미화 3,430 만 달러
	기타:	미화 4,260 만 달러
또는 인명피해	사망자 및 실종자:	20
	부상자:	50
	이재민:	2000

출처: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대재해 데이터베이스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고도로 다각화된 선도적 글로벌 재보험사로 전세계 20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1'을,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